

動 向 分 析

經濟一般

● 민간소비 확대와 설비투자 증가로 경제성장률 4.6% 기록

1999년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급속한 경기회복에 힘입어 4.6%였다. 이로써 IMF 직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1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이번 경제성장은 민간소비 확대와 설비 투자 등 내수가 증가로 반전되고, 수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1997. 1/4	1998. 1/4	1999. 1/4
경제성장률	4.9	-3.6	4.6
산 업			
제조업	5.6	-4.6	10.7
건설업	-3.5	-3.9	-15.1
서비스업	6.6	-4.5	6.6
수 요			
민간소비	4.5	-9.9	6.3
고정투자	0.8	-20.6	-4.3
물 가			
소비자	4.7	8.7	0.7
생산자	3.6	14.4	-3.5
수출입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1.1	25.7	12.4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7.8	-27.2	27.5

자료 : 한국은행, 『1999년 1/4분기 국내총생산』, 1999. 5.

생산측면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0.7% 성장을 하면서 경제회복을 주도하였다. 이번 분기의 제조업 생산증가는 경공업(-0.2%)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주로 중화학공업의

생산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중화학공업은 반도체, 컴퓨터 등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선박 등 운수장비의 생산이 호조를 보여 13.8%의 높은 생산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산업용 기계의 생산은 계속 부진하였다.

서비스업은 통신업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1998년 감소하였던 도소매업, 운수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이 증가로 반전됨에 따라 6.6% 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면 건설업은 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이 활발하였으나 민간건설이 부진하여 생산은 15.1% 감소하였으며, 농림어업은 축산업(-18.7%)과 임업(-8.5%)의 부진으로 7.6% 생산감소를 보였다.

● 내구재 소비증가와 운수장비 투자증가

수요측면에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감소를 지속하였다. 1999년 1/4분기 최종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하였으나 주로 가계소비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가계소비 중 의류 및 신발 등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내구재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늘어남에 따라 6.4% 증가하였다.

설비투자는 12.9% 증가하였지만 향후 산업기반이 되는 기계류 투자(3.8%)보다는 주로 운수장비 투자(49.7%)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재고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농산물 재고가 크게 감소한 데다 생산자 제품재고도 줄어들어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저점에 도달하는 시점에서는 재고가 줄어들지만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면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고를 다시 늘리게 된다. 그러나 1999년 1/4분기에는 재고의 감소가 지속되었다.

● 물량기준의 수출입 모두 증가

1999년 1/4분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12.4%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이번 분기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출의 경우 상품수출은 경공업제품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제품이 호조를 보여 12.8%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수출은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입은 줄었으나 화물운임 수입이 늘어나 10.4% 증가하였다.

한편 수입 중 상품수입은 컴퓨터, 통신기기 등 자본재 수입이 증가한 데다 음식료품 및 담배 등 소비재와 원유, 산업용 화합물 등 원자재 수입도 늘어나 26.0% 증가하였고, 서비스 수입은 해외여행 경비 및 수수료 지급 등이 늘어나 34.2% 증가하였다.

●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

1999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하는데 그쳐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농축수산물(9.2%), 공공서비스(3.3%)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세(-3.2%), 개인서비스(-1.2%), 공업제품(-0.9%)의 하락이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에 비해 3.5% 감소를 보였으며, 1998년 11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의 감소는 서비스 공산품 가격이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내린데 주로 기인한다.

●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199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4.6%를 기록하자 1999년 경제성장률의 수정전망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경우 3.8%로 발표했던 경제성장률을 수정전망할 계획이며, 민간경제연구소들도 당초 3~4% 정도로 전망했다가 5%대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

OECD 및 WEFA 등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1999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상향조정했다.

<표 2> 1999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한국은행	LG경제연구소	대우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OECD	WEFA
초기전망	3.8	4.0	3.5	3.1	0.5	0.6
수정전망	-	5.6	5.2	5.4	4.5	2.5